

# 교육 혁신의 동력, 2030 밀레니얼 세대



혹시 ‘밀레니얼 세대’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세대라는 X세대 1970년대 출생에 이은 Y세대 1980-90년대 출생을 일컫는 말로, 2000년을 뜻하는 ‘밀레니엄 Millennium’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현재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20~30대 교사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 중 무려 48% 2017년도 교육 기본 통계 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현재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는 중견 교사로서 부장 교사를 맡기도 하고, 신규 교사로서 각종 연수와 실험, 다양한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향후 10~20년간 교육 혁신의 주체이자 학교 문화를 이끌어 가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운영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초등 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과 실험실 ‘진저티 프로젝트’가 2017~2018년에 공동 연구한 ‘Hello Me 프로젝트’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Hello Me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건강한 교육 활동을 만들어 가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 선생님들의 기회와 도전을 이해하고, 그들이 지닌 가능성과 역량이 드러나는 미래 교육 현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개인 및 그룹 인터뷰, 워크숍, 온라인

설문 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320여 명 밀레니얼 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아 분석하였으며, 그들의 경험, 성장, 특징, 고민, 바람에 대해 보고 들으며, 어떻게 하면 이들의 가능성과 역량이 교육 현장에서 드러날 수 있을지를 모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밀레니얼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째, 삶과 일을 꾸려 나갈 때 ‘재미와 의미’를 추구하며,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단어의 뜻 그대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 N개의 취향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같은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전형적인 선생님의 이미지는 거부합니다. 셋째, 디지털 네이티브 Digital Native로서 첨단 기술이 힘들고 단조로운 일들을 줄여 주며 시간을 벌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즉, SNS Social Network Service나 첨단 기술 사용에 익숙합니다. 넷째, 자기중심적이지만 인정 욕구와 관계에 대한 욕구가 커서 자신이 사랑하는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조직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대부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밀레니얼 교사들의 특징은 기존의 학교 문화와 체제에 역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직에서 ‘승진파’와 ‘웰빙파’로 양분된 역할을 뛰어넘는 ‘개개인의

기존 교사 모임과 연구회가 내부 구성원의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밀레니얼 세대 교사들로 이루어진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내부 구성원의 성장과 콘텐츠 제작, 공유로 이어지는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춥니다.



육구에 따른 역할'을 선택하곤 합니다. 또 자신이 속해 있는 학교 조직에는 충성을 다하지 않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소모임, 동호회 등에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조직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공유합니다.

최근 이런 현상은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드러납니다.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로는 이미지 콘텐츠를 만드는 '참쌤의 콘텐츠 스쿨(참쌤스쿨)', 교육 미술 콘텐츠를 만드는 '스텝매직', 놀이 콘텐츠를 만드는 '같이놀자',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몽당분필', 코딩 게임 콘텐츠를 만드는 '스티브코딩', 영화 수업 콘텐츠를 만드는 '에듀씨네', 과학 콘텐츠를 만드는 '아꿈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공동체는 구성원 대부분이 밀레니얼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 교육청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자비로 회비, 교통비, 연수비를 부담하며 열정적으로 모임에 참여합니다. 참쌤스쿨의 경우에는 월 1회 모임을 갖는데 제주, 거제, 여수, 해남, 사천, 부산, 진주 등 전국 각 지역에서 매번 올라와 모임에 참석할 만큼 열정적입니다. 오전 10시에 모여 오후 10시까지 서로 콘텐츠를 나누고, 만들며, 앞으로의 계획을 의논하고 결정합니다.

기존 교사 모임과 연구회가 내부 구성원의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밀레니얼 교





지난 6월 참쌤스쿨, 스텝매직 등 6개 단체가 모여 개최한 인디스쿨 콘텐츠 축제 현장. 교육 미술, 드로잉쇼 등 각종 공연과, 바로 수업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콘텐츠로 이뤄진 연수로 구성되었다. 성장과 인정 욕구가 강한 밀레니얼 세대 교사들의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대표적 사례이다.

사들로 이루어진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내부 구성원의 성장과 콘텐츠 제작, 공유로 이어지는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춥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인정 욕구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6월 30일, 무려 700여 명의 선생님이 서울교육대학교에 모였습니다. 인디스쿨 교사 모임인 참쌤스쿨, 스텝매직, 같이놀자, 몽당분필, 스티브코딩, 전국초등음악수업연구회 등 6개 단체가 모여 개최한 '인디스쿨 콘텐츠 축제(구 참쌤스쿨 그림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료 연수임에도 불구하고 모집 정원을 금세 채울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축제는 1부 공연(힙합, 교육 미술, 드로잉쇼, 영상 상영)과 2부 연수로 이루어져 있었고, 연수는 이미지 콘텐츠 제작, 비주얼 씽킹, 그림 놀이, 미술 수업, 음악 수업, 영상 콘텐츠, 교육 미술, 게임 코딩, 학습 놀이 등 바로 수업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콘텐츠로 가득 찼습니다. 단편적인 예이지만 '인디스쿨 콘텐츠 축제'에서 봤듯이 밀레니얼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이들이 앞으로의 교육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은 '나다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 학교 문화와 많이 충돌합니다. '요즘 젊은 선생들은 이기적이야!'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밀레니얼 세대 교사들은 기존의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학교 문화를 강요할수록 학교에 충성하지 않고 자신이 더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장소와 사람들을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에 매우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입니다.

밀레니얼 세대 교사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교육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콘텐츠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시다. '1년차는 이래야 해, 5년차는 이래야 해, 10년차여서 이런 업무를 해야 해, 교사는 이래야 해!'와 같은 생각은 이제 접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혁신을 이끌어 갈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기존의 역할보다는 '나다움' 모습이 가장 최선이자 최고의 모습이니까요.



김차명은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 파견 교사로, 초등학교 커뮤니티 인디스쿨 대표 운영진이자 참쌤스쿨 대표로 활동 중이다. 경인교육대학교와 외교부 재외동포재단에서 각각 강의와 해외 파견 강사로도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참쌤의 비주얼씽킹 끝판왕>이 있다.